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심 원 식(Wonsik Sh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주제전담사서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
| II. 주제사서 서비스의 시행 및 관련 교육과정
현황과 분석 | 1.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기본 전략 |
| 1. 국내 대학도서관 주제사서 서비스 시행 현황 | 2. 주제전담사서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강화 구성 |
| 2.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리에종 제도 | IV. 주제전담사서 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 |
| 3. 주제사서 양성 과정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현직 사서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담사서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사서제의 필요성 및 교육체계의 변경에 대한 주장은 많이 제기되고 왔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서 주제사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현직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리에종 사서제가 현실에 적합하다는 분석을 통해 주제전담사서 양성 과정의 목표, 교육과정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향후 주제전담사서 양성 과정이 보다 성숙해지려면 교육 기관의 다양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표준화, 다양한 교육 과정의 개발,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의 참고봉사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주제전담사서, 훈련, 교육과정개발, 리에종

ABSTRACT

Among university librarians and academic community in Korea, there has been constant debate on the need for subject librarianship and the restructuring of educational programs. The debate has not resulted in substantive change so far. Recently, as several university libraries have begun to implement subject librarian service,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educate practicing librarians for such service. Recognizing that the liaison service model best fits the reality of academic libraries, this article proposes curriculum development goals and strategies, and specific course listings for the training of subject liaison librarians. We also suggest specific conditions requisite for such education programs fully develop in the future.

Keywords: Academic Libraries, Subject Librarians, Training, Curriculum Development, Liaison

*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wonsikshim@skku.edu)

• 접수일: 2009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현재 국내 고등교육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다. 여기에 발 맞춰 개별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 노력과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흔히 BK21), 누리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정부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요소는 양질의 학술정보자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생산, 출판되는 다양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 학습자들에게 전달하여 활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연구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발굴하기도 하지만 학술정보자원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대학도서관 및 유관 기관을 통해 획득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연구자가 접근, 사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의 전문화, 교육·연구 분야에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기획,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사서의 전문화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대학도서관의 전문화와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장서 및 사서의 주제전문화¹⁾는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의 선진적인 연구 및 교육 목표 달성에 가시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제전담사서제는 대학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직업적 전문성과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많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전담사서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것이다.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재교육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전문 분야든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재교육 및 계속 교육을 하지 않고는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행하게도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및 계속 교육은 아직 더 활성화되어야 할 형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직무 연수 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또한 사서 자신들이 전문가가 되어 다른 사서를 교육시키는 선순환적인 교육 환경의 조성 측면에서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서들의 재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주제전담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용어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주제전문사서, 주제사서, 주제담당사서, 리에종(liaison), 학과전담사서 등이 있다.²⁾ 문헌정보학

1) 이용재, 주제화를 통해 본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2)는 주제사서제 및 대학도서관의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용어사전은 주제전문사서를 “주제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리에종 서비스는 해당 주제 분야의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서비스, 이용자 교육 및 주제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학과전담사서는 리에종 서비스를 구체적인 학과 혹은 단과대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용어들은 상당히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용어는 개별 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 운영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전담사서라는 용어는 위에 언급된 다양한 주제서비스 관련 용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 주제전문사서제가 확립되지 않았고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체계가 잡히지 않은 점을 들어 주제를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주제전담사서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리에종 사서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I. 주제사서 서비스의 시행 및 관련 교육과정 현황과 분석

국내의 문헌정보학 교육체계는 학부 위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주제 분야의 배경을 가진 주제전담사서의 양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의 전문성 기반이 학부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있어 주제사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의 근간 교육과정을 대학원으로 옮겨서 다양한 학부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게 하여 전문성이 높은 사서를 양성하는 미국형 문헌정보학 교육체계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주제사서의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체계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주제사서제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론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실제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는 도서관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현직 사서들이 주제전담서비스를 기획,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본 장에서는 기존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에 앞서 현재 주제사서제 서비스의 현황과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주제사서제 관련 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실제 교육과정의 부재 속에 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의견 제시가 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논문 4)에서 주제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에 대

2) 강혜영, 대학도서관의 주제담당사서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p.32는 주제담당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340.

4)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서지과목 과제방안 연구-

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1. 국내 대학도서관 주제사서 서비스 시행 현황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그리고 학습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 역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서비스 제공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이 기능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제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내의 대학도서관은 이미 1972년 한상완⁵⁾에 의해 주제별 열람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주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공간 및 인적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 분관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중앙도서관이 자료형태별 자료실에서 단과대학 단위의 주제형태별 자료실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는 도서관 운영의 패러다임이 장서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전적 의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적 구성으로 주제전문사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국형 주제전문사서인 주제전담사서, 주제담당사서, 학과전담사서, 학과연계사서 등으로 변형된 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제사서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상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굳이 주제사서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주제사서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에서는 위에 열거된 대학을 중심으로 각 도서관의 주제사서제에 대한 간략한 현황을 소개한다.

- 서울대학교는 현재 7개의 분관 형태의 주제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2월부터 중앙도서관을 분관과는 별도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각각 2명씩 10명의 전담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치된 전담 사서는 『학과전담사서』라고 한다. 단과대학 개념으로 분류하여 담당 사서를 배치하였으며, 교수들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는 2005년도에 도서관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주제담당사서』라는 명칭으로 주제전담사서 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제 분야는 총 11개로

법률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6권 제3호(2002. 9), pp.49-68; 남영준, 허운순,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39-64; 정동열,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p.5-23.

5)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활동 영역확장론,” 도협월보, 제13권 제6호(1972. 6), pp.7-14.

구분하였으며, 각 분야마다 1명의 사서를 배치하여 11명의 주제담당사서를 두고 있다. 한 공간에 주제담당사서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형태로서 주제별 자료실과 주제전담사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요 서비스 대상자를 교수로 선정하고, 교수 개개인과 면담 및 프로필을 구축하여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 연세대학교는 『주제전문사서』라는 명칭으로 2007년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제 분야는 영문학/문헌정보학, 한국학, 법학, 경영학, 중국학, 정치학, 물리학/천문우주학, 생물학/생화학, 생명공학/화학공학, 건축공학, 전기전자/기계공학이며 각 분야에 1명씩 총 11명의 담당 사서를 배치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는 기존의 사서를 주제사서로 재배치하는 대부분의 학교와는 달리 해당 주제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급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사서교육학을 이수하게 하여 실질적인 주제전문사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주제전문사서 제도의 특징은 주제 배경을 가진 사서가 담당 영역의 주제전문사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학과/대학과의 연락 담당(리에종)을 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영남대학교는 『주제전담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003년도 9월부터 법학부, 약학부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2007년 3월부터는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08년 10월부터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도서관은 특정 학과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과연계사서(liaison librarian)의 개념을 대학도서관에 도입한 초기의 모델로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시행이 일천하며 아직까지 축적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주제사서 서비스의 내용은 연구지원, 장서선정, 참고봉사, 이용자교육, 강의지원 등으로 기관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대상은 주로 교수,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셋째, 주제 배경을 가진 사서인력을 충원하는 주제전문사서제도라기 보다는 기존 사서의 재배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국내 주제사서제 서비스의 양상을 보면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수용될 수 있는 주제사서제의 형태는 리에종 사서제라고 보여지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도서관의 여건상 세분화된 주제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 둘째, 비록 소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주제 배경을 가진 석박사급 인력을 충원한 바 있지만 이것이 다수의 도서관에 확산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단기간에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주제전문사서를 배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인력의 재교육 필요를 감안할 때 국내 주제사서제의 가장 실제적인 대안은 리에종 사서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리에종 사서제도에 관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2.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리에종(liaison) 제도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liaison 프로그램은 잘 정착되어 있다. 주제사서, 주제전문가, 도서관 liaison, 주제서지전문가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서는 특정 주제와 특정 고객층에 대해 서비스 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서관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⁶⁾ 대부분의 liaison 프로그램은 liaison 사서가 해당 주제 분야의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서비스, 이용자 교육, 주제가이드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주제 관련 장서의 구입은 liaison 사서 이외에 해당 분야의 서지전문가(bibliographer)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대형 연구중심 도서관에서 나타난다.

liaison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수천명 이하인 소규모의 liberal arts college부터 대형 주립, 사립 대학도서관에서도 활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liaison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웹 페이지에 주제별 담당 사서의 명단을 제시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사서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도 있는 반면 사서를 해당 단과대로 직접 보내 단과대의 각종 위원회,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단과대 관련 수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까지 있다.

liaison 사서의 기능 혹은 제공 서비스의 범위는 학술자료의 입수 및 구매, 연구지원 서비스, 주제분야 연구 자료의 작성 및 배포, 도서관 이용 지도, 과제물의 개발 등으로 파악된다. liaison 사서는 주로 이메일과 면대면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뉴스레터, 학내 우편과 같은 인쇄매체의 사용은 사라지고 있으며 교수들에게 발표하는 등의 비교적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최근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⁷⁾

가. liaison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⁸⁾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플로리다대학의 의학 관련 단과대 이용자들 가운데 교수들이 liaison 사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60%)이 레지던트(16%), 직원(29%), 학생(38%)들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aison 사서가 있다는 것은 안 사람 가운데 담당 사서가 누구인지 인지하는 비율도 교수들은 88%, 레지던트 63%, 직원 56%, 그리고 학생 60%로 조사되었다.

6) Tennant, M. R., Cataldo, T. T., Sherwill-Navarro, P., & Jesano, R. "Evaluation of a liaison librarian program: client and liaison perspectives." *Journal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94, No.4(2006), pp.402-409.

7) Glynn, T., & Wu, C., "New roles and opportunities for academic library liaisons: a survey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 Services Review*, Vol.31, No.2(2003), pp.122-128.

8) Tennant, M. R., Cataldo, T.T., Sherwill-Navarro, P., & Jesano, R. *ibid.* p. 404-405.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서와 접촉 경험이 있는 비율은 교수집단은 90%, 레지던트 50%, 직원 56%, 학생 58%로 나타나 적어도 의학 관련 분야 이용자들 가운데서는 교수들이 liaison 프로그램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iaison 프로그램의 효과 및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liaison 프로그램이 도서관과의 관계를 개선시켰는가에 대한 물음에 교수들은 87% 학생들은 47%가 긍정하였으며(전체 71%),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해서는 교수가 71%, 학생들이 23%(전체 53%)로 답변하였다.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이 있는 교수의 경우에는 100%가 지지하였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86%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수집단의 liaison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효과가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liaison 사서의 자질과 주제전문성

주제전답사서, liaison 사서의 주제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다. 어떤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실제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그 분야의 정규 학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답사서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정규 학위 소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몇몇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제전답사서의 간단한 이력을 조사해 보면 의외로 사서들이 주제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는 물론 학사 학위 배경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소규모의 대학교 도서관이나 주립대 도서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비리그 대학교 가운데 명성이 높은 Yale 대학교의 도서관, 그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진 의과대학 도서관 사서의 학문 배경을 보더라도 나타난다.⁹⁾ 총 6명의 참고봉사담당 사서 모두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과학 혹은 생의학 관련 학사 혹은 석사 학위 소지자는 없었다. 6명 가운데 2명은 추가로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분야는 각각 교육학 그리고 인문학이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의학 계열을 담당하는 10명의 도서관 사서 가운데 의학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지 한 명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다.¹⁰⁾ 이 연구 결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단과대학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서일수록 전문 분야 학위 혹은 동 분야의 경험이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liaison 사서의 전문분야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와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즉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9) <<http://www.med.yale.edu/library/about/staff.html>>에 열거된 의대도서관 소속 사서 가운데 Curriculum & Research Support(교육, 연구 및 참고봉사담당) 사서 6인의 간단한 약력을 조사함.

10) Tennant, M. R., Cataldo, T. T., Sherwill-Navarro, P., & Jesano, R. *ibid.* pp.446-448.

liaison 사서의 전문 학위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전문 학위가 없는 사서들이 제공하는 liaison 서비스에 대한 교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기대와는 달리 전문 학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liaison 사서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플로리다 대학의 의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10명의 liaison 사서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주제전문성을 높이는지 설문한 결과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표 1〉 주제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에종 사서가 사용한 방법

주제전문성 제고 활동	수행 비율(n=10)*
주제 관련 문헌을 읽는다	80
의학도서관협회 / 전문도서관협회 이메일 리스트 참여	80
의학도서관협회 / 전문도서관협회의 관련 소그룹 참여	70
주제 분야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 이수	60
해당 학과 교수의 웹페이지를 자주 방문	40
해당 학과의 뉴스레터 및 간행물을 읽는다	40
해당 주제 분야의 학술 세미나에 참석	30
해당 학문 분야의 과목 수강	10
기타:	
주제 관련 학회 참석	30
해당 학과의 학술 행사에 참여	20
비사서 주제 전문가 이메일 목록에 참가	10
비사서 주제 전문가 모임에 참가	10
주제 관련 온라인 뉴스 읽는다	10
사서 직무 관련 과목 혹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	10

출처: Cataldo, T. T., Tennant, M. R., Sherwill-Navarro, P., & Jesano, R. *Ibid.* p.447.

* 수행 비율은 조사 대상 10인의 각 활동 내용에 대한 긍정 비율.

제한된 자료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과를 보면 주제전담사서제, liaison 사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대부분이 주제 배경을 가졌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주제전담사서들이 on-the-job 훈련 (OJT)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이 한국의 대학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 in-house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2-3년에 직무순환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비교적 장기적으로 동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와 비교해 사서협회를 통한 다양한 계속 교육 및 관심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 점, 미국 문헌정보학 석사 과정에 주제 분야 참고봉사서비스 과목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이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주제 배경 없이도 liaison 사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보인다.

3. 주제사서 양성 과정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는 주제사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 주제사서의 재교육 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가. 국내 주제사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주제사서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주제사서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거의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고 대학의 교과 과정으로는 상명대학교의 사례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에서는 두 사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주제사서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서의 주제별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4년 초급과정으로 개설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초급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교육내용은 크게 1) 주제전문사서의 개념 및 필요성, 패러다임의 변화 등 개괄적 강좌, 2) 학문영역별 기초 개념과 내용을 교육하는 강좌, 3) 학문분야 특히 사회과학 분야 참고정보원 및 온라인 참고정보원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강좌, 4) 사서 실무자들의 현장 사례 및 탐방 등 실무중심의 강좌, 5) 기타 교양 위주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양성과정은 관종의 구분이 없이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문에 대한 강의가 많으나 다양한 학문의 기본 개념 등 기초적 내용만을 담고 있고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편향되어 있다. 또한 기초와 심화 교육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심화 교육으로서의 차별성과 깊이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강자 대부분이 주제사서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 비해 현장방문 및 사례를 통한 교육이 제한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양성과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장에서의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 여겨지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와의 업무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대인관계 및 화법, 마케팅론, 홍보물 제작법 등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교육 관련해서는 논문작성법, 주요 전자자원 및 Web DB 내용과 활용법, 교수법,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자료 개발 능력, 프리젠테이션 작성법 등이 향후 교육과정 설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전문성과 관련하여 담당학문 기초 및 주요 개념, 주제별 참고정보원 개발 및 활용법, 장서 개발론 등이 적용 가능하다.

국내 문헌정보학 정규과정에서 주제사서를 염두에 두고 강좌를 개설한 사례는 상명대학교가 대표적이다.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의학대학 도서관, 병원 자료실, 의학 관련 연구소, 제약 회사 등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의학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학사과정에 개설하였다. 개설된 과목의 의학도서관, 의학용어학, 의학 및 과학 정보원 세 강좌로 현장 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도 가능하였다. 상명대의 교육과정은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의학사서 양성을 위한 유일한 교육과정이었으나 담당 교수의 퇴임으로 맥을 잇지 못하였다.

상명대학교에서는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2006년도부터 새로이 지식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할 정보전문 인력의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이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다. 산학협동과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위하여 심사관 및 특허법률 사무소의 변리사들을 초빙 및 겸임교수 등으로 초빙하여 교육하고 동시에 졸업생들의 취업과 재학생들의 실습 기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나. 미국의 주제전문사서 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분석

국내의 사정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주제전문사서 관련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학위과정은 다양한 학부 전공을 마친 학생들을 전문사서로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부전공을 주제배경으로 하여 주제전문가를 양성하기 보다는 관종별 도서관에 따른 정보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에 목표를 두고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들은 주제전담사서의 문헌정보학적 지식 및 기술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법학, 의학, 예술분야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서관 환경에서도 특수한 주제 분야로 인식되어 이 3개 분야의 주제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 있다. 특히 법학, 의학 분야의 경우 문헌정보학과와 해당 학과 간에 연계 학위(joint degree) 프로그램이 비교적 활발하게 개설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학, 의학, 그리고 예술분야 중 음악 분야의 주제사서 교육 프로그램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의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법학 주제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Arizona, San Jose State University 등 총 33개 대학으로 법률정보원과 봉사, 법률도서관학, 법률도서관운영, 법률서지, 법학연구 등의 강좌가 비교적 많이 개설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11)

MLA(Medical Library Association)에 의하면¹²⁾ 2009년 현재, 미국에는 총 47개의 대학에서 의학도서관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강좌의 내용은 의학참고정보원, 의학정보 동향, 의학정보 및 데이터관리, 의학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현장실습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의학 온

11) 홍명자, “법률 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9), p.266.

12) 미국의학도서관협회(MLA) 홈페이지, <<http://www.mlanet.org/education/libschools/index.html>> [cited 2009. 2. 20].

라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주로 PubMed 등에 대한 검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지원에 의하면 미국에서 음악주제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 15개 대학에서 음악주제를 다룬 전문 교과목을 개설, 강의하고 있다.¹³⁾ 이 15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문교과목은 크게 music librarianship에 속하는 교과목과 music bibliography에 속하는 과목, 2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최상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끊임없는 학습과 정보습득 등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각종 협회의 주관으로 주제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¹⁴⁾ 이러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의 도서관대회 뿐 아니라 주 단위의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 교육 이외에도 온라인에서의 강의를 상당수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각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속교육 프로그램들은 전문사서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참고봉사, 장서개발, 정보검색, 전자정보 관리 등의 업무분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은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Ⅲ. 주제전담사서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앞 장에서는 주제전담사서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주제전담사서제도의 현황과 기존의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기본 전략

주제전담사서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강미혜는 법률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학부 전공 교육과목에서부터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접근 방법을 주장하였다.¹⁵⁾ 최근 활성화된 학부 과정에서의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주제적 지식을 확보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사서들로 하여금 학계 및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주제전문성을 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13) 이지원, 음악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7), pp.64-79.

14) 황옥경, "대학도서관 사서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6), pp.173-190.

15) 강미혜, 전제논문.

위에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현재 확고하게 자리 잡은 양성 방안은 아직 없다. 유일하게 협회 차원에서 주제사서 인증제도를 도입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학사서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여서 향후 확산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봉사를 위해서는 사서들의 주제적 지식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미 제시된 다양한 정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제전담사서를 양성하는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은 다양한 교육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제전담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주제전담사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제전담사서제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참고봉사를 위한 “인적협조자”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주제화, 전문화되어가는 이용자들의 참고질의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¹⁶⁾ 하지만 주제전담사서가 해당 주제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은 정보속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근거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정동열은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 해당 주제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정보자료의 주제적 특성이나 이해를 통해 이용자의 주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독해력에 있다고 강조한다.¹⁷⁾

주제전담사서의 역할에 대한 위의 논의를 고려하면 주제전담사서의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주제지식 뿐만 아니라 정보속성에 대한 보다 강화된 경험과 분석 능력이다. 즉 주제지식 측면에서는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자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분야의 정보자원의 대한 이해를 당면한 정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사서의 능력이 개발되고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제시되는 주제전담사서의 양성 과정에서 이런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적지 않은 사서들이 주제전문성의 확고한 담보 없이 주제전담사서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사서들이 해당 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 등을 통해 주제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서 본연의 강점, 즉 정보에 대한 독해력 혹은 감수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주제사서의 양성에서도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제전담사서의 양성 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제전담사서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도서관의 현실적인 필요이다. 아직 소수의 대학도서관만이 주제사서제를 시행하고 있고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 기획, 그리고 홍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주제전담사서의 양성 교과과정은 이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16) 정제영,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도서관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395.

17) 정동열, 전계논문, p.14.

하여야 한다. 주제전담사서제가 한국의 대학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 체계의 하나로 인정된 후에는 사서의 주제전문성을 더 강조하는 교과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전담사서제가 본격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의 전문화, 특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상당수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참고봉사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측면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과 사서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제고시킨다면 도서관 내에서의 사서들의 자기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서관 외부에서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시되는 주제전담사서의 양성에 있어서 현직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학교 교수나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강사진에 의존하기보다 사서 중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이를 강사로 적극 발굴하여 그 역량을 한층 북돋아주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서들이 현장 경험과 자기 개발을 통해 강사 및 전문가로 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주제전담사서 양성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 현직 사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제전담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전략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주제지식 이외에 정보원에 대한 이해, 정보 문제에 대한 적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주제전담사서로서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뿐 아니라 주제사서제를 제안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직 사서들이 교육 과정에 강사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개별 도서관의 다양한 운영 환경을 인정하고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야와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2. 주제전담사서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강좌 구성

현재 대학도서관 사서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제전담사서 관련 교육 과정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4년부터 개설하고 있는 주제전문사서 양성과정 (초급과 심화 과정)은 도서관 관중에 상관없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개별 대학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주제사서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주제전담사서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제전담사서 서비스를 현장에서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

용을 전달하여 주제전담사서제도의 확산을 촉진시키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교육 목표의 설정 및 관련 교과과정의 도출은 국내에서 주제사서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주제담당사서 4명과 연구자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도출은 주제사서의 직무분석¹⁸⁾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한 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목적, 설정 배경 및 관련된 교과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목표 1. 주제사서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주제사서서비스에 대한 지식이해

주제사서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사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논의된 주제사서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미국의 대학도서관 주제사서를 모델로 한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모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 서비스의 실태와 주제사서의 자격 요건,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실무자의 이해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 실현가능한 주제사서제도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서관의 서비스 환경 및 제공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새로운 IT 기술 및 환경에 대한 이해도 주제사서를 제공하는 실무자에게 요긴하다.

- 주제사서의 역할 및 주제사서 서비스
- 주제사서 서비스의 평가와 개선
- IT 신기술과 주제사서 서비스

목표 2. 해당 주제 분야의 학문구조와 주요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는 전략 연구

주제전담사서제와 관련된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서들이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진행되어 온 주제사서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분석할 결과 주제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학문 분야의 대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학문의 발전 과정, 주요 개념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 과정은 두 가지 면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해당 주제 분야의 연구자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은 그 연구자의 연구 필요 및 과정을 사례로 삼아 그 분야 연구자의 정보 필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주제전담사서 교육은 단순히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서들이 주

18) 안인자, 노동조, 노영희, 김성진, “국내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12), pp.533-549.

제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습득,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다루어야 한다. 본 교육 과정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해당 주제 분야의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고, 관련 정보 필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주제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주제전문성 개발 전략

목표 3.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제사서와 관련된 사례를 연구 및 적용점 찾기.

많은 사서들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학도서관 간의 운영환경의 차이이다. 즉 국내 대학도서관의 운영환경과 사서들의 교육 경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차이점 또한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환경과 도서관의 인적자원의 차이는 본 교육에서 지향하는 주제전담사서서비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주제사서서비스가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해서 단일한 주제사서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유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교육 과정에서는 주제사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참가자들이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대학도서관의 운영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운영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제전담사서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한 교육과정에서 접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수준에서의 기관 비교를 할 수 있게 하고 선도기관이 여러 대학의 벤치마킹 요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사서 운영사례 벤치마킹

목표 4. 주제사서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

현재 상당수의 국내 대학도서관은 주제사서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기관의 방문 등을 통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일단 주제사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내부 인적자원을 재조정하고, 대학 본부로부터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결재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사서들이 갖춰야할 주제사서서비스 기획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주제사서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인 이용자 교육의 기획과 실시 방안에 대한 이해도 이와 관련된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다.

- 주제사서 서비스 기획 및 실행
- 이용자 교육 Best Practice
- 조별 주제 발표 및 평가

목표 5.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인식과 이용자와의 효과적인 커

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및 방법 습득

주제사서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용자의 정보 필요를 보다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이 정보 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해결 방안을 효과적인 방법으로-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과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원칙에 대한 이해와 기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이 영역에 대해 많은 도서관 사서들이 현실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기법
- 참고봉사에서의 상호작용 전략
- 주제사서 서비스 홍보와 마케팅 전략

목표 6. 해당 주제 분야의 참고정보원 수집과 활용방안을 학습

주제전담사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자원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문제해결에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인쇄, 전자 정보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관련된 실무 지식과 전략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정보 자원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사서와 이용자 간의 보유 정보자원의 격차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전문가로서 사서의 경쟁적인 전문성을 개발·유지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본 학습 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인터넷 및 전자DB 검색 기법 및 전략
- 참고정보원을 활용한 정보봉사
- 참고정보원 개발 및 활용

위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제사서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주제사서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한다.
- 해당 주제 분야의 학문구조와 주요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한다.
-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제사서와 관련된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점을 찾는다.
- 주제사서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및 방법을 습득한다.
- 해당 주제 분야의 참고정보원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학습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향후 교육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위에 수립된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표 2>는 5일 단기 과정을 22개 강좌로 구성한 사례이다. 이 가운데 사서의 주제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3개로 기존의 주제전문사서 교육 과정에서 강좌의 대부분이 주제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포함된 3개의 주제전문성 개발 강좌(주제전문성 개발 전략 1, 2, 3)는 단순히 주제 학문 분야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대신 해당 분야 연구자의 정보 필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제전문성을 개발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인터넷 및 전자DB 검색 기법 및 전략', '참고정보원을 활용한 정보 봉사', '참고정보원 개발 및 활용', '주제사서서비스의 평가와 개선' 등의 강좌도 주제전문성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서 주제전문성 관련 과목의 비중은 적어도 1/3은 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주제전문성 개발 부분에 대한 강좌 비율은 향후 수강자의 평가 등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주제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2> 현직 사서 대상 주제사서 양성 재교육 과정의 사례 (5일 기준)¹⁹⁾

1일	2일	3일	4일	5일
	주제사서 서비스 기획 1	참고정보원을 활용한 정보봉사	이용자 교육 Best Practice 1	참고봉사에서의 상호작용 전략
	주제사서 서비스 기획 2	참고정보원 개발 및 활용	이용자 교육 Best Practice 2	주제사서 서비스의 평가와 개선
	주제사서 운영사례연구 1	주제사서 운영사례 연구 2	주제사서 운영사례 연구 3	
주제사서의 역할 및 주제사서 서비스	주제전문성 개발 전략 1	주제전문성 개발 전략 2	주제전문성 개발 전략 3	
인터넷 및 전자DB 검색 기법 및 전략	대인 커뮤니케이션 원리와 기법	주제사서 서비스 홍보/마케팅 전략	IT 신기술과 주제사서 서비스문화 강좌	

IV. 주제전담사서 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현실과 주제사서 관련 교육 기회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 교육 목표와 내용, 운영 방안 등은 대학도서관의 운영환경, 주제사서 양성 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9) 표에 제시된 5일 과정의 주제사서 교육 프로그램이 2007년 12월 3일~7일간에 걸쳐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전문가과정으로 시행되었다. 해당 주제 분야는 사회과학이었다.

이미 주제전문사서와 교육 체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과 해결책이 제시된 바 있으나 현직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 과정 밖에서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주제전담사서를 재교육할 수 있는 양성 기관이 추가로 발굴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교육 부분이 기본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서재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제전문사서 양성 과정은 앞으로도 개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을 위한 주제전담사서 양성 과정의 지속적인 개발, 제공을 위해서는 조만간 교육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기관 혹은 단체의 등장 필요하다.²⁰⁾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 이미 사서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서교육원이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구, 부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서교육원은 이미 사서 양성 및 재교육 부분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강사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전담 직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강사 모집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 대안은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가 주제전담사서 양성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서 커뮤니티가 굳건하게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사서의 계속 교육의 대부분을 도서관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관련 협회 혹은 사서공동체가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맡게 되면 사서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관련 협회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발족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이 교육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한 재교육 프로그램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만큼 새로운 연합회가 주제사서 교육의 역할을 맡으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향후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이 보다 전문화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성 교육의 대내외적 공신력에도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표준화 방안의 하나는 외부 기관에 의한 인증이 될 수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전문사서제는 협회 차원에서의 개별 인적자원에 대한 인증이며 이것은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외부 인증과는 구분된다.

주제전담사서 교육과정의 외부 기관에 의한 인증은 교육 과정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교육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필요는 단지 주제전담사서의 교육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국내 도서관 사서 재교육 및 계속교육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전문 분야의 계속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로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20) 정재영(전계논문)은 학계, 도서관 현장, 그리고 유관 기관 간의 삼각협력 모형을 이미 제시하였고 주제전문사서 양성위원회를 통해 역할 조정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Continuing Education & Training(IACET)가 있다.²¹⁾ IACET는 일정 기준과 자격을 충족한 교육기관을 공인기관(authorized providers)으로 인증하고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CEUs(Continuing Education Units)²²⁾라는 표준 교육 이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공립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부에서 공인하는 직무연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제전담사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필요한 인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셋째,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1-2일간의 단기교육과정, 1주일 과정, 2주 이상의 장기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1-2일의 단기간의 교육 과정은 주제전담사서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하기에는 너무 짧고 2주 이상의 장기간의 교육 과정은 주제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대학도서관 인적 자원의 운영의 현실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이 있다. 주제전담사서제에 대한 교육 수요는 매우 다양하다. 향후 주제사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기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 기회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것의 주체는 실무 사서가 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서 커뮤니티 (지역별 도서관협의회, 주제별 도서관협의회, 도메리, RISS의 사서 커뮤니티 등)를 통한 주제전담사서 교육 과정 개발 및 시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들 기관 혹은 커뮤니티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전달 방법 면에서도 집체 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강의 전달, 주제 정보원의 개발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도서관에서의 참고정보서비스의 활성화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 관련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2007년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으로 국내에는 516의 대학도서관이 있으며 총 3,704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²³⁾ 한 개의 대학도서관에 평균적으로 8명이 채 안 되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도서관의 인적규모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도서관은 열악한 인적자원의 규모로 인해 주제사서서비스를 포함한 사서의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제전담사서제와 관련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대학도서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고봉사서비스를 주제전담사서의

21) IACET 홈페이지, <<http://www.iacet.org>> [cited 2009. 2. 20].

22) 하나의 CEU는 10시간의 교육 참여 및 이수 시간(contact hours of participation)으로 환산된다.

2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p.412.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대학도서관에서 보다 활발한 참고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은 단기적으로 중대형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향후 교육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여 다양한 규모의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밀착적인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참고봉사 서비스의 하나는 이용자 교육이다. 최근 국내의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변화된 도서관 환경에서 이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를 늘리고 이용자들의 정보 수집, 활용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서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내의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직접적인 참고봉사 서비스가 활성화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주제사서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교육을 포함한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제전담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참고봉사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기회가 사서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직 사서, 도서관 관련 협회, 문헌정보학계 및 관련 정부 기관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